

알기쉬운 건축사진 촬영법

Easy Camera Technique for Architecture



임정익 / 사진가
by Yam, Chung-uk

학력
· 중앙건축사진연구소 대표
· 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그동안 건축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아날로그 방식인 필름카메라와 디지털 방식인 DSLR카메라를 병행하며 많은 사진작업을 해왔다. 필름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다 보면 필름을 현상하고 인화하는 작업으로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고, 그 결과 물이 있는 그대로 표현돼 전봇대의 전선줄이나 건물 주변의 지저분한 모습들로 인해 좋지 않은 모습들도 함께 보여지곤 했다.

그러나 요즘에는 디지털카메라로 인해 건축사진이 더 좋은 표현방법으로 만들어지게 되면서 많은 이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카메라의 응용으로 실제의 건축물들을 보는 이들에게 너무도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되기도 한다. 단적으로 건물 주변의 광고간판이나 지저분한 주변의 모습들을 정리해 주고 날이 흐린 날씨에 촬영한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색다른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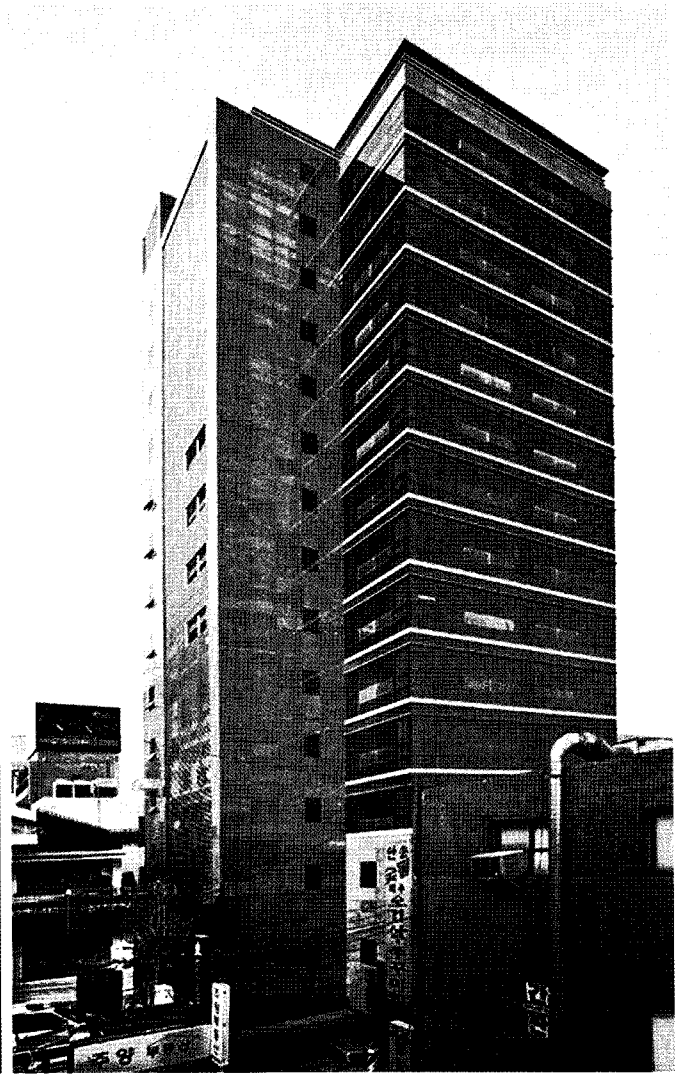
이러한 방법들은 컴퓨터를 이용한 포토샵의 기능들로 건축사

진의 새로운 매력으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사용법도 어렵지 않아 조금만 공부하면 누구나 손쉽게 좋은 사진을 만들게 되었다.

특히 디지털카메라로 인해 필름현상이나 사진을 인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적인 오염문제도 없어지게 되었으며 나아가 결과물들을 만드는 시간도 매우 절약하게 된 것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사진은 누르면 나온다. 이제 건축사진은 더 이상 어려워 할 일이 아니다. 단지 건축을 보는 눈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아날로그이던 디지털이건 테크닉과 같은 기술적인 문제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필자가 대학에서 건축사진을 강의하다 보면 주로 젊은이들과 만나게 된다. 그동안 건축사진 수업을 교수하면서 가장 많이 질문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종류의 카메라를 구입해야 하는가



1. 캐논5d mark2 카메라로 촬영한 반포 프린스타워 건물모습 2. '그림'을 포토샵으로 보정하여 수정한 모습

에 대한 고민이다.

수강하는 학생들 중에는 대부분이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지만 필자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필카' 건 '디카' 건 카메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축을 보는 눈이 중요하다는 조언을 자주하게 된다. 또 주제가 되는 건축에 대한 이해와 이를 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카메라에 대한 기능이나 테크닉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준다고 본다. 필자도 과거에는 필름카메라를 주로 이용하여 왔지만 최근 들어 디지털카메라를 병행하며 건축사진을 촬영하고 있으며 컴퓨터의 응용과 디지털카메라의 기능들을 공부하면서 더 좋은 결과의 사진을 만들어 내고 있다. 어떤 때는 필름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필름들을 스캔하여 작업하기도 하지만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디지털카메라를 선호하게 되는 것이다.

사진은 촬영자가 얼마나 노력했느냐에 따른 결과의 산물이라고 생각되지만 시간성과 장소성 그리고 빛에 대한 조화가 이루어져야 좋은 사진을 만들 수 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좋은 결과물을 만들기 바라지만 그것은 그리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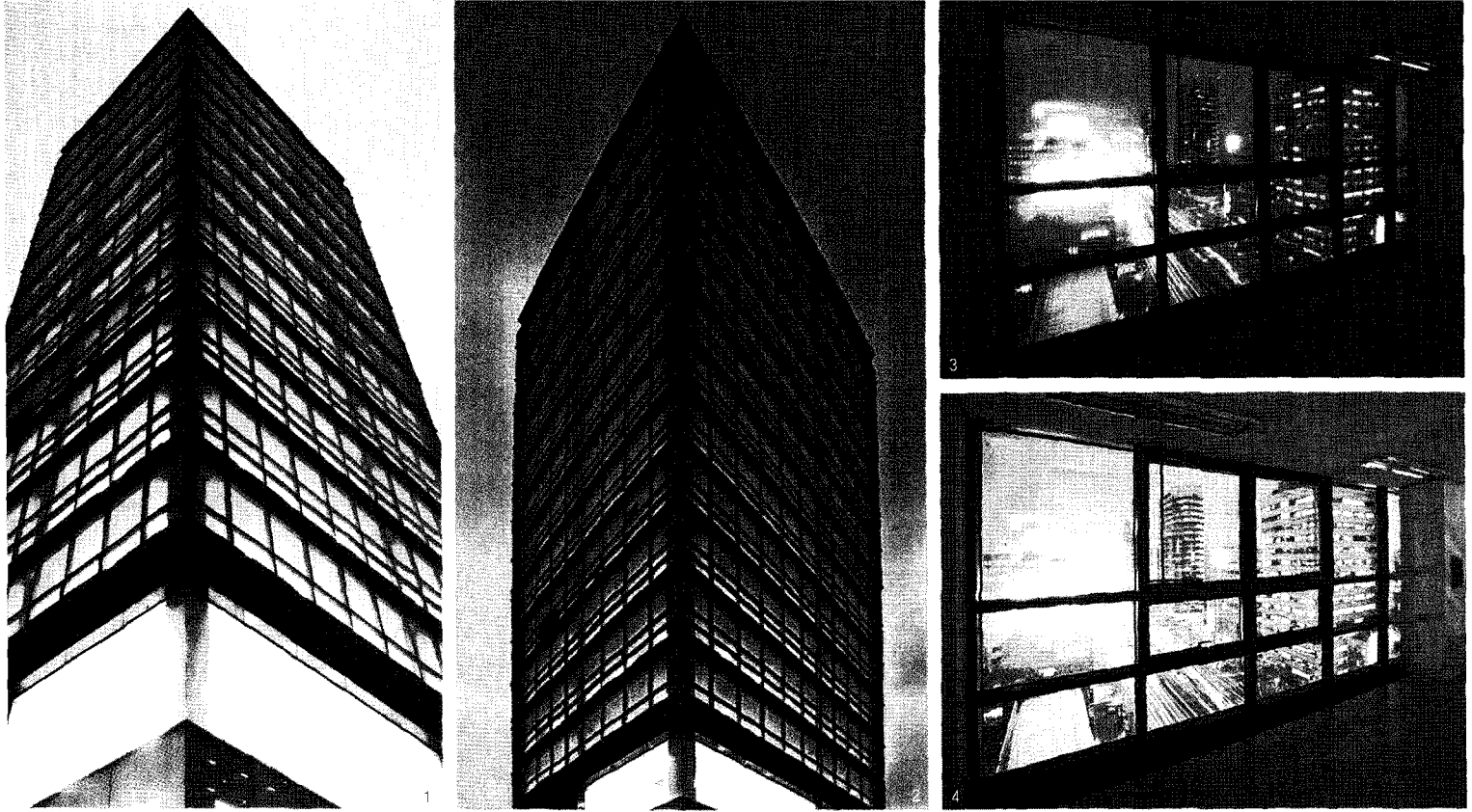
이것은 단지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라고 생각된다. 사진을 전문

으로 하는 이들에게는 카메라에 대한 정보나 주제에 대한 이해와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좋은 사진을 촬영하고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사진가가 아닌 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이들에게는 조금은 어렵게 생각되는 일이라 생각되지만, 이도 이제는 디지털카메라의 등장으로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또 기본적으로 좋은 사진을 촬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좋은 기능을 갖춘 카메라를 구비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되지만 꼭 그러한 것도 아니다. 필름카메라나 디지털카메라나 똑같은 기능을 갖춘 카메라이다. 단지 프로세스 과정에서의 차이점을 보여 주지만 촬영하는 과정은 똑같다. 필름카메라는 촬영하고 나면 필름을 현상하고 인화하는 과정이 있고, 디지털카메라는 즉석에서 확인하고 수정하여 촬영한다는 장점이 있을 뿐이다.

디카건 필카건 사진을 촬영하는데 관여하는 구성요소는 크게 3가지가 있다. 바로 셔터 스피드(Time)와 조리개(Focus) 그리고 감도(ISO)인데 이 3가지는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나를 변화시키면 나머지 둘이 변화하는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이 3가지를 적절히 이해하고 조절할 줄 알아야 좋은 사진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기능들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 셔터 스피드를



1. 캐논 5D mark2 카메라로 촬영한 반포 프린스타워 건물모습 2. '그림'을 포토샵으로 보정하여 수정한 모습 3~4. 원래의 실제 어두운 모습(그림3)에서 색 보정하여 수정(그림4)한 모습

오토(A)모드로 고정하여 촬영하다보면 시간의 흐름으로 그 기능들을 이해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그리고 삼각대를 이용한 촬영방법이다. 주제가 되는 대상이 건축물과 같은 움직이지 않는 형태들이므로 항상 조리개 우선으로 촬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삼각대가 없이 부득이 촬영하는 경우에는 흔들리지 않는 빠른 셔터스피드를 이용하여 촬영하여야 한다.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디지털카메라를 소유하고 이용하고 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로 부터 어떤 종류의 렌즈를 이용하여야 좋은 사진을 만들 수 있느냐고 질문을 받게 되지만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종류의 카메라와 렌즈들 중에 어느 종류의 카메라를 구입해서 촬영해야 할지 감을 잡지 못한다. 그래서 구입하기 전에 미리 가이드가 되도록 간단히 정리해 본다.

카메라와 렌즈 그리고 액세서리를 구입하는데 너무 많은 종류의 메이커들과 카메라 판매점이 있다. 사람들은 몇 천, 몇 만 원짜리 물건을 살 때도 이것저것 확인하고 구입하듯이 몇 십만 원 또는 몇 백만 원 하는 장비를 구입하기 전에 확인하고 공부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다.

카메라의 메이커들은 대부분 캐논, 니콘, 올림푸스, 삼성, 소니 등이며, 이밖에도 너무나 많은 메이커들이 만들어 내고 있다. 카메라의 모든 기능들은 대개가 비슷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지만 주제가 되는 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 선택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렌즈의 종류가 많은 업체의 카메라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신의 모델을 구하는 것이 좋다. 전자제품의 특징은 신제품일수록 성능이 우수하고 사용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또 보급형이나 중급형이나 고급형이나에 따라 선택해야 하는데, 흔히 초보자들은 보급형을 사용하지만

일부 제품은 초점을 맞추는데 사용하는 모터를 빼서 가격을 낮추었으므로 DSLR의 장점인 다양한 렌즈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된다. 모든 렌즈를 사용할 수 없는 치명적인 단점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구입해서는 안 된다.

보급형 카메라들은 가격도 저렴하고 가벼워서 초보자들이 사진을 배울 때 많이 시작한다.

그러나 사진을 알게 되면 어김없이 더 좋은 카메라로 업그레이드 하기 때문에 가급적 중급이상의 카메라를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 나아가 처음부터 고급형 카메라를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가격에서 너무나 많은 경제적 부담이 되지만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이들은 아예 처음부터 이러한 선택을 갖게 되는 것이다.

참고로 보급형과 중급형 그리고 고급형을 살펴보면, 보급형에는 캐논의 350D, 400D, 450D, 1000D 그리고 니콘으로는 D50, D80, D90, 소니는 a350, 올림푸스는 e420, e520을 들 수 있다. 중급형에는 캐논 30D, 40D, 50D, 5D, 5Dmark2가, 니콘 D200, D300, D700 그리고 소니 a700, 올림푸스 e3, e30을 꼽는다. 이어 고급형에는 캐논 1D, 1DS, 니콘 D2시리즈, 소니 a900 등이 있다.

건축사진을 촬영하는데 꼭 어느 메이커의 카메라가 좋다고 선정하는 것 보다는 중급형 정도의 카메라와 초광각 렌즈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된다. 주제가 되는 건축물들은 모두가 제각기 다른 형태들이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렌즈는 대부분이 와이드렌즈로 촬영하게 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촬영된 이미지들을 컴퓨터에서 어떻게 보정하고 수정하고 변화할 수 있는 일로 포토샵과 같은 기능들을 수월하게 다룰 수 있느냐가 중요한 일이다. ■